

## [특별한 세미나] 성기 노출증의 원인과 치료적 이해

---

2022년 9월 24일 토요일

누구라도 자신의 특성이나 성격의 한 측면을 노출증적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갖가지 지식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이 담고 있는 내용물들을 두드러지게 노출할 수도 있다. 한 예로, 수많은 학자가 자기 생각과 지식을 일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자신을 스스로 과시하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어 보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늘어놓으면서 동료 학생들 모두를 짜증나게 만드는 모습. 이처럼 노출 행위는 웃을 다 입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임상적 노출증", 즉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 중 일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와 방금 언급했던 "심리학적 노출증 또는 "심리적 노출증", 즉 한 사람의 심리적 측면에서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욕구는 배제한 채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행위를 구분하고자 한다.

성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노출증 환자들은 수줍음을 많이 타고 사회적 수완이 부족하며, 상당수는 강박적인 성향을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독신으로 생활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도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형적인 노출증 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 대해 자각이 없거나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지만 극소수의 여성들도 노출한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내보이는 남성들은 대부분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여성들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데, 특히 젊은 여성이나 사춘기 소녀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대부분 25세에서 35세 사이의 남성으로, 그들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따라 노출을 한다.

"유형 1"로 알려진 노출광 집단의 하위 유형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이완된 상태의 흐물흐물한 성기를 내보인다. 이 집단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종종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반면 "유형 2", 즉 두 번째 하위 그룹의 범죄자들은 발기된 성기를 내보인다. 이들은 때때로 발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음을 하기도 한다. 이들은 더 중증의 환자로,

이들 중 몇몇은 명백한 성적 쾌감을 얻으며 양심의 가책 따위는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노출증 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정신의학자인 그레이엄 루스(Graham Rooth)"는 이러한 유형 2에 속하는 사람들은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도 높다고 말한다. 어떤 노출 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극히 소수이긴 하지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노출증 환자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나 성인 여성들이 놀라는 모습을 미리 상상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부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노출 행위의 71%가 실외에서 이루어졌으며, 실내에서 일어난 경우는 29%에 지나지 않았다.

노출증 환자들이 12월이나 1월보다 4월과 5월을 선호했다. 주중보다 일요일에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적었으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후 3시에서 4시 59분 사이였다. 그러니까 노출증 환자들도 잠은 자는 것이다!" 호주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실외에서 노출 행위가 발생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최적한 거리는 약 3.6m라고 한다.

사람이나 대상에게 실제로 사정을 하는 경우, 즉 "살리로마니아(Saliromania)"가 있다. 이러한 사정 행위자들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내고 오르가슴에 이를 때까지 자위행위를 하다가 살아 있는 피해자 혹은 여성의 동상이나 초상화처럼 여성을 표상하는 무생물을 향해 사정한다.

사진 노출증(photoexhibitionism)" 이라고 명명한 또 다른 형태의 노출증을 보고했다. 이것은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행위를 말한다.

변형적 노출증으로는 "배설물 노출증(faecal exhibitionism)"이 있다.

도둑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가 똥을 싸놓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자기 창자 속의 내용물을 일종의 가학적인 선물처럼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영국의 법의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크리스토퍼 코디스(Christopher Cordess)는 전화로 외설적인 내용을 지껄이는 노출증 형태에 대해 쓴 바 있다. 이 경우 남성은 전화를 걸어서 누군지 모를 무방비 상태의 여성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파괴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드러낸다. 역사적으로 "음란 전화"로 알려져 있는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 코디스는 "언어적 노출증" 이라 했다.

노출증은 접촉음란증이나 가학적 성 환상 등과 같은 여타의 정신병리학적 형태와 결합하여 등장하기도 한다. 미국의 연구자 에이벌과 오스본은 노출증이 접촉음란증, 소

아애호증, 강간, 복장도착증, 관음증 등 다른 형태의 변태성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노출증 환자들의 약 93%가 한 가지 이상의 성도착증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환자의 내면세계가 매우 복잡하고 왜곡되어 있으며 그것이 여러 가지 징후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유년 시절에는 허용되지만, 점차 억압이나 승화라는 주요한 방법에 따르게 된다."라고 한 프로이트의 관찰 결과를 강조했다. 아브라함 박사는 서너 살 된 남자아이들이 성기를 노출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을 주목했다. 남자아이들은 엄마 앞에서 오줌을 누는 행위를 즐기며 그들의 능력을 보여 주면서 추앙받는 것을 즐긴다."

페렌치는 누군가를 매혹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강력한 성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충동이 강하게 억압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정반대의 상태, 즉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상태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 상태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방어기제라고 할 수 있다. 페렌치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기를 두려워하는 공포증인 스펙트로포비아(spectrophobia)에 관련된 짧은 글을 발표했다." 그는 스펙트로 공포를 노출의 잠재적 즐거움으로부터 회피하는 방편이라고 창의적으로 개념화했다. 페렌치 박사의 이러한 연구들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꿈혹은 현실 속에서 옷을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며 여성들의 이러한 행위가 두려움을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을 알게 해 준다.

초기 베를린 학파의 정신분석학자였던 하르닉은 한스 작스(Hanns Sachs)의 임상적 관찰에 부분적으로 기반을 두고 남성들에게서 노출증은 거세공포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추론했다. 실제 남성 생식기가 굉장히 약하고, 특히 어린 시절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는 점을 볼 때, 성기의 연약함에 대한 불안을 소년기에는 오랫동안 잊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노출 행위로 일시적으로나마 안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출 행위는 아직 누구도 자신의 성기에 손대지 않았다는 생각을 강화시킨다.

하르닉은 왜 여성들에게서는 성기 노출 행위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그는 프로이트도 주장했듯이 여성들은 남근이 없다는 점에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기를, 다시 말해 남근의 부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르닉은 여기에 덧붙여 추론하기를, 따라서 여성들은 대부분 남성 노출증 환자들처럼 성기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외모와 치장을 통해 몸 전체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써 항상 그들 자신을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시킨다고 했다.

로랜드는 노출증이 성기의 안전과 자신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출 행위자는 불특정한 구경꾼들 앞에서 성기를 드러냄으로써 사람들

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고 자신의 성기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것이 정말로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로랜드는 노출증이 남성을 "이빨이 나 있는 질(Vagina Dentata)"이라는 환상에 대한 공포로부터 보호해 주는 한편, 여성들과 성적으로 밀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고 했다.

임상심리학자들은 거세공포가 노출증을 발달시키는 근본적 원인 중의 하나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임상 치료 경험에서 축적해 왔다.

그는 피터라는 한 남자의 사례를 들어, 그 남자는 “수영장, 목욕탕, 혹은 침대에서까지 상어가 자신의 성기를 물어뜯을 것이라는 환상’ 때문에 괴로워했다고 진술했다. 안나 프로이트는 한 소년이 세 차례의 외과 수술을 받은 뒤에 이웃 소녀들에게 성기를 보여 주는 곤란한 상황에 빠진 사례를 언급한다. 이 소년은 손가락 발가락 수술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포경 수술을 받았다. 이 소년의 성기 노출 행위는 의사가 손가락, 발가락, 성기를 잘라낸다는 두려움에 맞서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비롯된,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행동이다.

노출증 환자 중에서 많은 이들이 표면상으로는 이성애적 삶을 살아가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과 결혼하곤 한다. 이들 중 일부는 콜포포비아(Colpophobia), 즉 질 공포증에 시달린 나머지 성기의 삽입” 보다 “노출”을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신분석학 사전 편집자 오토 페니첼(Otto Fenichel)은 노출증이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했다.” 그 역시 프로이트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의미에서 부적절한 노출 행위를 유아적 성욕의 형태로 퇴행하는 편향적 본능이나 구성적 충동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간주했다.

이는 노출증 환자들이 피해자가 되기를 지나치게 두려워한 나머지 피해자보다는 공격자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페니첼 박사는 프로이트가 이미 암시한 바 있듯이 노출증이 강력한 관음증적 충동에 대한 방어기제로 작용한다고 생각했다.

노출증 환자는 여성 피해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자신의 괴로움을 타인에게 성공적으로 투사한다는 것이다.

소커라이즈는 노출증적 행동이 성 정체성을 찾기 위해 애쓰는 남성들에게는 남성으로서의 강한 정체감을 느끼게 해 주는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다른 정신의학자들은 대부분의 노출 행위가 이성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만을 강조했지만, 소커라이즈는 노출증 환자들에게서 동성애적 경향과 욕구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노출증 환자들이 발달 단계상 분리 단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분리-개체화 단계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한 남자아이는 비록 아직 노출증의 징후를 보

이지는 않겠지만 자신을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동일시하고 남자로서 무능하다는 느낌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된다. 그 후 노출 행위가 남성성에 대한 앎을 끌어내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여성과의 최초 동일시"라고 기술했던 것을 차츰 상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소커라이즈의 이론에 따르면, 노출증 환자들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잘 보살펴 주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담당했던 환자들의 인생을 살펴보고, 나중에 우울증을 낳을 정도로 버림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발견했다. 소커라이즈는, 노출 행위가 여성적 충동을 피하고 남성성을 되찾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우울한 기분을 제거하는 기능, 특히 노출증 환자들의 무력감을 제거하는 기능도 한다고 보았다.

노출증 환자들의 어린 시절 경험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엄마와 아기라는 관계에서 엄마로부터 보호의 결핍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벌거벗은 몸을 보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 시절에 나체나 노출 행위를 목격하는 경험이 훗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 버리는 행동에 대해서도 스스럼없는 느낌이 들게 하는 데 일조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크리스토퍼 루카스는 자신이 돌보았던 몇몇 노출증 환자들이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노출증 환자들이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제한된 가정에서 성장했으므로 내적인 갈등을 "언어" 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발달했으리라고 추측했다.

